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결의대회

최근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주장을 명문화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가 7월24일 오전11시 포천시 소흘읍사무소에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가 독도 근해에 다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지배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정세가 변해 일본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침략을 해할 시기가 왔을 때 독도는 그들의 대의명

분을 쫓기 위한 타겟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바르게 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600여 회원은 일본 문부과 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자기네 영토라는 표기를 삭제하고 일본 관리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영토의 역사적 입증확실히 하여 세계민방에 실증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망언을 즉각철회하고 사과하여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실천하여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박살 내자!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

조성빈 기자 csbkj@hanmail.net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가 7월24일 소흘읍사무소에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6천여가지 전자제품 한자리에 전시판매

미래형 전자제품 양판점 전자랜드 포천점 개점



전자제품 전문 양판점 전자랜드 포천점이 7월24일 10시 포천시 소흘읍 이도교리 36-1번지에 개점하고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6천여 가지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전자제품 전문 양판점 전자랜드 포천점(점장 김용기)이 7월24일 10시 포천시 소흘읍 이도교리 36-1번지에 개점하고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6천여 가지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포천점 개점식은 전자랜드 홍보철 회장, 이기홍 대표이사, 비롯한 내외빈과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지역주민 200여 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포천점 개점을 기념해 전자랜드 매장 개점을 축하하는 고객이 직접 전자랜드로 축하문자를 보내서 전체 참여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100% 당첨 축하문자 보내기 경품 대전'과 오픈기념 선착순

최고 70% 할인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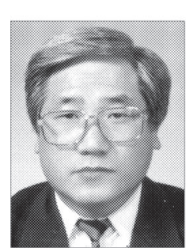
김용기 포천점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삼성, LG, 소니, 대우 등 메이커 별로 상품을 준비했으며 가격대비 성능비교로 소량의 즐거움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하고 "포천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성장하는 전자랜드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자랜드 포천점 입점으로 삼성 디지털프라자, LG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판매 빅3의 고객유치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 단상

자기의 값어치



김창성 내촌교회목사

사람은 자기생각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보는 대로 된다고 가르친다. 의사들은 먹는 대로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생의 법칙은 자화상(自畫像)대로 되는 것이다. 자기 값은 자기가 결정한다.

1. 역사상 가장 귀중한 날
모 회사에서 인사 면접을 하는 도중 면접위원이 "역사상 가장 기념 할 날이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 응모자가 큰 소리로 "네 1971년5월28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지?"하고 물으니 "제 생일입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하였다. 모두가 동문서답(東門西答)이라고 웃었지만 몇몇 면접관은 자신 만만한 자화상에 A점수를 주었다.

2. 자기 값은 자기가
일본 NHK 방송국은 사원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고 작품 역시 일반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A급 프로듀서가 사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간다고 한다. 이곳은 입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되면 급료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책정하게 한다. 1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으로 정하고 500만이라고 하면 500만원으로 정해진다. 그야말로 자기 값을 자기가 매기는 것이다. 자화상대로 된다.

3. 라만차의 사나이와 창녀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 있다. 그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창녀를 보자 "오 나의 아름다운 귀부인이여!"라고 찬사를 보냈다. "날 귀부인이라 말하지 마세요. 난 딸내이는 알둔자(창녀)요, 난 댄배 풍초와 같은 여자예요. 못 남자들이 댄배에서 단물만 받아 먹고 풍초만 버리듯이 못 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쾌락만 빨아먹고 헌신짝 같이 버리고 있어요? 라고 독백하듯 외쳐댔다. 그러나 라만차의 사나이는 끝까지 믿어 주고 신뢰하며 알둔자(창녀)아닌 돌진네아(귀부인)인을 강조했다. 이 뮤지컬 종막에 사나이는 실연(失戀)으로 목숨을 잃었다. 귀부인이 찾아왔다. 나직만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제 이름은 돌진네아예요" 드디어 그는 자화상을 바꾸었다.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정죄하던 자화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믿

어주고 아끼는 자화상으로 변모되었다. 라만차의 사나이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결론
예수를 만나는 다 자화상이 바뀌게 되었고 자기 값을 자기가 값지게 매기게 됐다. 평범한 인간이 예수의 형제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마스쿠스에서 배울, 미디안의 모세, 뽕나무 위의 세 무서장 사게오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 아홉 우물가의 수 가성 여인 모두가 예수 때문에 값진 생애로 변모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교훈을 하신다. 갈라디아서6장3절~9절에 "자기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교훈 하신다.

문의) 031-532-2489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④

노인문제 의식 개혁 및 관심의 바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아동, 청·장년기를 거쳐 노인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며,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노인이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누구에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갖게 된다.

노인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한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보호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 노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가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당시에는 식생활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여겼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복지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

화·산업화로 인구가 밀집되어 발생하고 핵가족 현상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의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노령화 사회를 맞게 된 것이 노인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보다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각자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훌륭한 복지정책이 시행된다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으며 노인문제를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노후문제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노인복지사업은 경제적인 면에서 생생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급속무인 우리에게 투자 우선

순위에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노인복지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다. 전통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노인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노인에 대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존경심은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었지요.

존경의 대상이 된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노후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 연장, 자녀 교육비 증가로 산아제한을 하여 출생률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의 상실로 효의 본질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식개혁과 제

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계층이 청·장년층인데 이들이 노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정부투자순위에서 하위로 돌리는 한 노인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넓혀야 하며, 심도 깊은 연구로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통해서 노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포천지역의 시민들도 지금보다 더 노인문제의 의식개혁을 높이고, 관심을 갖는다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의 삶이 보장될 것이고, 미래의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 모습이 될 것입니다.

김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전화) 534-4777, 534-6880

전통한과의 맛을 계승 발전하는데 앞장

한과문화박물관,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교육과정 입교식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양성교육과정 입교식이 7월24일 오후2시에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한과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서장원 포천시장과 이종호 포천시의회회장과 교육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입교식에서 김규현 한과문화박물관장은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과자인 한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한과를 보다 친밀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능인 양성과정 36명의 입교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한 한과박물관 한가원은 우리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한과산업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교육·문화·관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한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한과전문기능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한과는 어려서부터 먹어온 전통음식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세계적인



제1기 한과전문기능인 양성교육과정 입교식이 7월24일 오후2시에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한과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유산가치가 있는 식품으로 특히 포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모으고 있다"며 "교육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받고 식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F유용교육원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회 포천시연합회와 포천시 지역농협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연과 함께하는 유럽식 목조주택 『프라임 리조트』

명성산과 산정호수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

다양한 객실

60평형(1개동), 40평형(6개동), 35평형(8개동), 30평형(2개동), 25평형(3개동), 22평형(6개동), 15평형(3개동)

부대시설

세미나실/바베큐큐/재즈카페/체육시설/산책로/명성산등반/야외공연장/정원

리조트

먹거리/레저/이벤트/주변여행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primeresort.co.kr
on line reservation 실시간 예약 예약문의전화 (031)531-7988